인권선언,이렇게 추진됩니다

추진단 등록
6월
각 지역, 공동체 등에서 최소 1회의 풀뿌리토론을 열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추진단에 등록합니다.

1차 전체회의
7월 11일(토)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풀뿌리토론
7~10월
추진위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풀뿌리토론을 진행하여 토론의 결과를 모아줍니다.

2차 전체회의
일정 추후 공지
추진단 전체가 모여서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선언할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정합니다.

범국민서명운동 등
2016년 1~3월
416인권선언문을 만들고 선언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2016년 4월

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416declaration 에서 신청하세요.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안내 | 7월 11일 오후 1시, 수운회관(서울 종로구, 안국역)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 당신,
참사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던 당신,

416 인권선언 추진단

에 함께해주세요

제가 세희를 잃고서야 깨달은 인간존엄의 권리를,
국민들은 더 큰 것을 잃기 전에 함께 깨닫고 함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자각하고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못난 아빠의 뼈아픈 깨달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_임종호 (416가족협의회)

막연한 감정으로 행동하면서 내 속에서 일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인권이란 단어를 통해 얻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던 일 모두가 인권을 경시한 행동이었다.

_김연지 (엄마의 노란손수건)

4.16 이후의 달라질 세상은 그 토대를 튼튼하게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4.16인권선언을 향해 가는 풀뿌리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 세월호 참사에 연루되었는지를 촘촘히 밝히기를 바란다. 정치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당연하게 여기거나 외면해왔던 것들을 낯선 것으로 꺼내어 놓고 새롭게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 (...) '잊지 않겠다' '달라지겠다'는 약속의 말이 껍데기만이 아닌 알맹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여 '인권'을 이야기하자!

_박희정 (작가기록단)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를 밝힐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가 빼앗기고 잊어왔던 생명, 안전, 진실, 치유, 구조, 회복의 권리들을 4.16 인권선언을 통해 다시 밝히고 행동을 확산해가요. 4.16 인권선언은 전국적인 풀뿌리토론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존엄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피해자의 권리, 연대권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가 선언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직접 밝히는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모아 만들어집니다. 풀뿌리토론은 누구든, 어디에서든 열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있으나,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풀뿌리토론을 열고 싶은 분들은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인권을 선언한다고 사회가 달라질까요?

네! 그러나 인권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나 조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인권선언의 힘은 선언된 권리에 있기보다 함께 선언하는 '사람들'에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권력에 우리의 권리를 내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선언할 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부와 기업 등에 책임을 묻고 의무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를 너끈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먼저 아닐까요?

416인권선언으로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16인권선언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진실과 정의에 대한 권리를 밝혀가는 만큼,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발 딛고 설 자리는 사라질 테니까요. 진실을 밝혀갈 진상규명 활동과 416인권선언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416인권선언